

지 그
금 4
도 월
나 에
는 살
리
라

꿈인 듯 살아나는 저 푸른 기억의 꼭대기에서
 그 날의 피멍든 합성 다시 올린다
 화산의 불길 그 용솨음처럼
 지축을 흔들던 젊음의 뒤편길에서
 민주의 햇불 다시 하늘 오른다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처절,
 마침내 쓰러진 내 친구 내 형제 내 자매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 조국 우리들의 나라에서
 참 향기로운 꽃으로 가득 피어난다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3월 8일, 대전에서
 3월 15일, 마산에서
 4월 18일, 서울에서
 4월 19일, 그렇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인종(忍從)을 넘어 굴욕을 밟고
 봄이 없어 애태우며 봄을 찾던
 오히려 무서운 용기와 피눈물을 섞어서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붓 곧게 세운 뜻
 회상하리라, 불러 깨우리라
 이제는 그 피물은 절규 새겨 있는가
 가슴 한 번 열어보리라

민주의 광채 곱게 빛나는가
 마음 하나 펼쳐보리라
 초록빛 자유는 꽃물로 물드는가
 우러러 조국 산천 달려나 보리라
 평화의 고통은 함께 울리던가
 겨레의 심장 들어가 보리라
 그래서 다시, 그리움 그로록 불태워 꽃핀
 자유와 평화를 노래하리라
 그래서 다시, 피를 토하며 허공에 쫓은
 민주와 정의의 깃발 날려보리라
 그래서 다시, 온 몸으로 일어나 역사를 응시하는
 저 증언의 새벽 새겨 보리라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 해도
 민주와 정의의 자손으로 오래 살리라
 자유와 평화의 기수로 오래 빛나리라
 잔인한 총알이나, 헛된 권력의 구뎃발 앞이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으리라
 현란한 광명을 흔들고 또 흔들리라
 세상의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살리라
 지금도 나는 그 4월에 머물리라

김용재

등단 월간 '시문학'(1974-75)

저서 - 시집 '겨울산책' (1976, 현대문학사) 외 10권

- 영문시집 'Even Being Pressed by Wheels Sunbeams Never Die'
(1996, Eastwind Press in USA)

수상 한국현대시인상, 국제계관시인상, 제6회 김우중문학상 외